

95% 반대에도 ‘만 5세’ 초등생 교수… 귀막은 교육부장관

〈교총 교원〉

교육계 “발달 단계 등 맞지 않아 교육 주체 배제한 정책 강행” 비판 박순애 “여러가지 고견 경청중”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관련 도어스테핑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발표에 교육계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특히 교육 주체를 배제한 정책 강행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발표 이후 교육 현장, 교육 단체 등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교원·전문가들은 만 5세의 발달 단계상 초등학교 입학은 적합하지 않다고 정책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겸 한국 4년제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수협 의회 회장은 “만 5세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는 것은 무리하고 억지로 만든 학제 개편안”이라며 “만 5세의 아

라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헌법 제31조 4항에서 정의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조기 입학은)공약에도 없고, 인수위 논의도 없었고 하물며 교육계나 교육 현장, 전문가 등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는 점이 아쉽다”며 “교육 정책은 굉장히 신중하게 내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나 급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겸 한국전대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회장도 “실제로 아이들의 학습적인 수명이 5분에서 16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요구되는 집중력은 1교시 40분으로 만 5세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며 “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유치원, 보육, 초등 교사가 별도로 분리돼 있는데 초등 교사가 유치원 교사 자격증까지 동시에 갖고 있을 확률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사 자격증이 다 분리돼 있기 때문에 만 5세의 발달 특성에 알맞는 유아기

해당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초등학교에는 없을 확률이 크다. 손 교수는 현재의 교사 양성 체계로는 무자격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95%가 만 5세 초등 입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단 3시간 만에 1만662명이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해당 사안을 주목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특히 반대 의견 중 ‘매우 반대’ 비율이 89.1%에 달해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찬성 의견은 5.3%에 불과했다.

만 5세 초등 입학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을 절대다수인 82.2%가 꼽으면서 현재까지 나온 교육계 의견에 힘을 실었다.

교육계의 이같은 강경한 반대기류와 달리 교육부는 여전히 정면 대응을 회

피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이뤄진 도어스테핑에서 “취학 연령 하향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게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에 있어서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고, 국가 책임교육제 하에서 보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견을 경청하고 있으니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연말에 그런 의견들이 종합된 정책 시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교육 주체의 의견은 듣지 않고 강행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모순된다.

이어 박 부총리는 “유치부 과정에 초중고교 12년을 더하는 방안, 13년을 더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해당 방안을 꼭 배제하지는 않지만 우선 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하며 12학년 체제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교원 확보시 첨단학과 석·박사 증원 가능

교육부, 첨단 신기술 분야 규제 완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장상윤(왼쪽 두번째) 교육부 차관이 지난 22일 안양시 동안구 대림대학교를 방문해 반도체기술 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관련 실습 수업에 참가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국정과제 81)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편입학여석) 등을 활용해 정원 증원을 추진해 왔으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했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원

대학은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과 달리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에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더불어 첨단분야가 아니어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또한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규정을 완화해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는 경우도 기준 충족으로 완화했다.

◆사립대학 규제 완화

대학의 교지(캠퍼스)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

혁신도시에는 많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다음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한다. 이후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2022.8.) 받은 뒤 첨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한다.

〈신하은 기자〉

광화문광장, ‘미디어아트’ 매일 선보인다

‘광화문화점’ 제작기간 6개월

오는 6일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광화문광장’이 매일매일 화려한 빛과 사운드의 미디어아트로 물든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개장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앞 해치마당 진입부에 길이 53m, 높이 최대 3.25m의 대형 LED 패널 미디어월(영상장)을 통해 4K의 고해상도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세종대왕상 뒤편 ‘세종이야기’ 출입구에 새로 설치된 큐브 모양의 유리구조체(미디어글라스)도 미디어아트 전시공간이 된다.

광화문광장 개장과 함께 해치마당 진입부 미디어월에서 선보일 첫 번째 작



미디어월 조감도. /서울시

품은 한글의 근본인 ‘天·地·人(천지인)’을 주제로 한 ‘광화문화점’(이예승·홍유리 작가)이다. 6개월 간의 제작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울시 광화문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8월

3일 (水)

음력 : 7월 6일

수도권 날씨

26~31 °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37 | 해질 / 19:39

| | |
|-----|-------|
| 연천 | 25/31 |
| 동두천 | 24/30 |
| 가평 | 24/30 |
| 양평 | 25/31 |
| 용인 | 25/30 |
| 평택 | 25/32 |
| 수원 | 26/30 |
| 인천 | 26/31 |
| 파주 | 25/30 |
| 백령도 | 24/29 |
| 서울 | 26/31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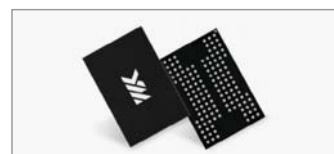


▲美 펠로시 대만 방문 확정에 긴장 ‘최고조’…中 “강력 조치”

▲우크라이나 전쟁, 동부에서 남부로 확산 조짐…흑해 연안 공습도 /사진 뉴스1

▲美 “핵무기, 美·동맹 ‘중대이익’ 수호 위해 극단 상황서만 사용 검토”

▲美 CIA, ‘빈라덴 후계자’ 알-자와리 드론으로 제거



▲美, 中에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제한 검토…韓 기업 피해 우려 /사진 뉴스1

▲“용프루도 못 가” 100년 만의 통제…알프스 빙하 녹아내린다